

목포항구축제

28일~8월 2일 삼학도 일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불빛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지친 심신의 온전한 쉼(休)을 위해 뭔가 특별하고 이색적인 거리를 찾는다면 목포 삼학도로 가보자. 한국 대중가요사에 한 획을 그은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목포 항구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곳 삼학도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5일 동안 펼쳐질 50여개 프로그램 가운데 '농치면 후회할' 8개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농치면 후회할' 8개 프로그램

선상 공연 멋지네 파시 한판 맛나네 풍어길놀이 흥겹네

❶ 풍어 길놀이 목포는 항구다(29일 오후 7시30분)

목포진을 출발해 동명동 수산시장을 거쳐 삼학도 행사장까지 총 1.8km 구간에서 펼쳐지는 시민주도형 스토리텔링 길놀이이다. 이 길놀이는 '희망가득 목포항' '풍요가득 목포항' '세계로 가는 목포항' 등 주제별 6개 그룹으로 나눠 퍼레이드를 펼쳐며 중간 중간 이색적인 세리머니를 연출한다.

❷ 목포항 블루스(29일 오후 9시)

목포항 옛 영상 미디어 쇼를 시작으로 풍물패가 23개 동 깃발을 들고 무대로 등장한다. 이어 시립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이 출동해 '희망의 목포항구 건곤갑리' 세리모니를 펼치고 축제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여름 밤바다를 수놓는다. 개막 주제 행사인 '목포항 블루스'는 제1막 노래하는 학 '이난영', 제2막 항구의 노래 '비틀즈', 제3막 '항구의 하모니' 순으로 진행된다.

❸ 신명나는 파시 한판(29일~8월 2일)

동명동 물랑장에 전통 파시, 삼학도 물랑장에 근대 파시, 요트 마리나에 현대 파시 등 축제장을 3곳의 시간대별 파시로 분류해 항구의 모습을 시대별로 재현한다. 또 이곳에서는 조선명인 초창전, 전통 한선 전시·승선 체험, 목포 5미 페스티벌, 전통놀이문화 체험, 추억의 주막 등 다양한 체험거리 등도 마련된다.

❹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31일 오후 7시30분)

'다문화 다같이'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일본,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11개 팀 90명이 참가해 각 나라별 문화공연과 함께 외국인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특히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되는 체험부스에는 켄

다마, 락스, 가라하, 드잉까라 등 3개국 4개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이 마련되고, 세계 9개 나라의 전통 의상이 전시된다. 또 음식 부스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등 7가지 베트남 전통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❺ 한여름 밤 시낭송 콘서트(31일 오후 8시)

근대문학을 리드한 문학의 고장 목포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학인들의 시를 소개하고 낭송하는 코너다. 시를 엮어 곡으로 만든 '목포는 항구다'와 '삼학선녀와 유달장수의 사랑'을 선보이고 전남 제능시낭송협회 소속 낭송가들이 국내 유명 작가들의 시 10여 편을 낭송해 여름밤을 수놓는다.

❻ 목포항 낭만 영화제(29일~8월 1일)

매일 주무대 행사 종료 이후 대형 LED 화면을 통해 바다와 낭만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 29일 '헤어와'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오션스', 31일 '올 이즈 로스트', 1일 '이파네마 소년' 등 모두 4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❼ 목포항 선상 프린지 공연(30일~1일 매일 오후 9시)

항구에 정박된 유자망 어선위에서 유명 프린지 전문 음악인들이 쇼 케이스 공연을 연출한다. 목포 출신 성악가들의 '선상의 아리아'와 라이브 가수들이 '추억 가득 라이브'를 선사한다.

❽ 어생(漁生) 그랜드 세일(29일~2일 매일 3회)

삼학도 해상 바지선 낭만 무대에서 매일 3차례에 걸쳐 전문 경매인의 사회로 서남권에서 생산된 홍어·덕자굴비 등 수산품을 현장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경매는 최저가와 최고가 경매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올해 목포항구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파시(彼市) 재현 행사다. 파시는 특정어획물을 어획하는 어장에서 어선과 상선 사이에 어획물의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는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풍어길놀이



삼학선녀 포토존



어생 그랜드 세일

추락사 부른 노후 난간 전면 실태조사

목포시가 지난 8일 석현동 주택가 도로 난간이 부러져 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도로변에 설치된 보행자용 난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난간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등 난간 관리부서 직원들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보행자용 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보수보강이 시급한 난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8월부터 곧바로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시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태풍 등에 대비해 대로변에 설치된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2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노후 고정간판 7284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인영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점검 결과 안전상 하자가 있는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 시에는 현장 안전조치 후 광고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해수청 휴가철 특별수송 대책 마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올해 여름 휴가철 기간 중 여객선 터미널 및 주요 기항지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8월 7일까지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송기간동안 서·남해 연안여객선 이용 승객이 전년과 비슷한 52만 8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여객선 4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23개 항로에 65척의 여객선을 평상시보다 1142회 증가한 8714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특히 하계 휴가를 이용하는 도서를 찾는 이용객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0일에는 여객선 5만5000명을 비롯한 차량 10만대가 섬을 오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혼잡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13억원 투입

목포시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24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들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유시장은 지난해 남진 아시장이 개장되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기존 주차대수 50대에서 76대로 26면을 늘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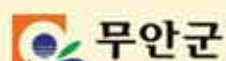
또 84면이 조성된 동부시장 부지 3177㎡에 2층 철골구조물을 세워 기존 84면에서 121면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이달 말 착공된다. 이 사업에는 중기청 예산 3억6000만원과 시비 2억4000만원 등 총 6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9월 두 곳의 주차장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시장 진출입의 안전성 확보와 불법 주차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 해소는 물론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에 따른 상가 매출 증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제20회 무안 연꽃축제

2016. 8.12(금) ~ 8.15(월)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백련의 향기 백련의 사랑

- 8.12(금) 타임캡슐 봉인식, 금혼식, 개막축하쇼
- 8.13(토) 황토굴 무안요리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 8.14(일) 전국 각설이 품바 왕중왕전, 중년건강클럽대회
- 8.15(월) 군민합창경연대회, 불꽃쇼

품바존, 열기구체험, 아이스존, 갯벌생태체험, 소망풍동날리기, 연이오빠 자전거 투어, 드론체험

체험시설

물놀이시설, 연꽃보트탐사, 오토캠핑장